

저희가 있는 다레살렘은 정신이 혼미할정도로 한참 덥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찬 공기와 이곳 공기를 섞으면 딱 좋은 날씨가 될텐데 싶습니다. 이번엔 편지가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사역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고, 결과를 기다리는라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6 월달로 이곳에 온지 만 4 년이 됩니다. 엊그제 온것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1 기 사역 첫 4 년을 마쳐가며 그동안 무사히 마칠수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후원해주신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6 월말부터 1 년의 안식년이 시작되며, 지금은 안식년후 시작될 제 2 기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1기는 대학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곳 환경, 문화 그리고 언어를 익히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2 기에는 크게 두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미전도종족 복음전파요, 두번째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지만 방치되어있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아 이 땅을 변화시킬 지도자로 키워가는 일입니다.

이성구선교사는 지난 4 년동안 UAUT 대학을 탄자니아에 세우고 초석을 다지는 일을 잘 마감하고, 새 사역 준비를 위해 UAUT를 사임했습니다. 이제 UAUT 대학은 6 월이 되면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새로운 제 2 기 사역을 위해 Education for African Children and Youth (EACY)라는 NGO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부정부패가 심각해서 돈을 쓰지않고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Joram이라는 탄자니아 청년이 도와 주어 일을 빨리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NGO를 통해, 영어권 사역자와 한국어권 사역자, 그리고 현지인사역자가 함께 동역하여, 이땅을 변화시킬 크리스챤 리더들을 키우며, 또 올바른 복음을 전할것입니다.

여기는 교회들은 많으나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2 주정도 성경 세미나에 참석하고 목사가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인 목사님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게하는것도 제 2 기 사역의 하나가 될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러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사역지를 찾기위해 공부하고, 기도하며, 여러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언어도 잘 통하지않고, 할수있는것도 없고, 또 어디로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가는곳마다 저희를 도울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려는 지역은 신기다라는 내륙 지역인데 (지금 저희가 있는 다레살렘에서 720 약 킬로메타 떨어졌습니다), 그곳은 탄자니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의 한 곳이며, 모슬렘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주민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일년에 8 개월정도는 비가 오지 않아, 비가오는 요즘 한때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의 마을 리더들을 만나게하시고, 그 마을의 이장을 도움을 통해 그 마을 땅 40 에이커를 신청해놓고 마을회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을에서 40 에이커의 땅을 저희 NGO에 주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습니다.

(신기다에서 지역 리더들을 만나고 땅을 방문…)



저희는 주일에는 때때로 현지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 리더들과 함께 노상에서 전도집회도 합니다. 스피커를 틀어놓고 그 교회 전도 대원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면 동네사람들이 모입니다. 평소에 별 구경 거리가 없는 그들은 신나는 음악과 율동에 무슨서커스를 구경하러 오듯 모여듭니다. 거기서 이상하게 생긴백인(?)이 복음을 전하면 신기한지 열심히 잘 듣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는사람도 있고 처음 복음을 듣는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일은 가능한 대로 현지교회와 함께 계속해서 이런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전도 집회는 모슬렘 지역에서도 현지 정부 오피스에서 미리 허락을 받아 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길거리 전도집회)



(다른지역 교회들 방문 - 말씀과 찬양으로 ….)





정미라선교사는 계속 바이블캠프를 하며 현지인이 그 사역을 계속 할수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잘할수있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 사역을 하며 아픈 아이들은 치료도 해주며 보살피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바이블캠프에 오는아이들중엔 머리가 찢어져서 오는아이, 열이 펄펄나는 아이, 발이 불에 데어서 꽂아 통통부은채 신발도 안신고 오는아이, 손톱과 발톱이 비정상적으로 커서 못걷는아이등, 도저히 이해할수도 없는 상태의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해서 그렇게 아프다 죽거나 혹은 다리를 잘라야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캐나다에서 올 때, 붕대, 소독약, 항생제 등을 충분히 가지고 왔는데,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한 아이들은 병원에 데리고 가지만, 그냥 찢기고 상처나고 데어서 염증이 심한아이들은 찢기고 소독하고 나을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해주면 잘 나옵니다. 그런 아이들은 부모가 없거나 아니면 그냥 부모가 방치하거나 해서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산 것이 거의 4-5 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이곳 문화를 이해하는것이 힘듭니다.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 누려야 하는 것들, 생각해야 하는 것들 같은 것을 이곳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조차 모릅니다. 이런 문화속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자라서 똑같은 문화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바꿔지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픈아이들을 치료하고 보살피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들이 어릴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문화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야 이 아이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때 저희가 다니는 현지교회의 성도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잔치 때 콜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몰라 실수를 했지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 기도제목

1. 이 땅에 복음이 빨리, 깊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속히 변화 되도록.
2. 첫템을 잘 마무리하고 두번째 템을 잘 준비할수있도록.
3. 신기다 지역에서 시작하려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며 하도록.
4. 신기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다니도록 (이곳에서 운전은 정말 위험합니다).

### 후원안내

캐나다: 수표 - 벤엘성결교회 (1155 College Street, Toronto, Ontario, M6H 1B7)로.

한국: 국민은행 331337-04-002245 탄자니아 대학교 후원회

(모든 경우에 후원선교사: 이성구/이미라 선교사앞이라고 명시해주십시오).